

에너지난에 원전 수십기 수명 연장 수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축소

유럽 올 겨울 난방 걱정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수명 다한 원전 연장 움직임

우크라이나 전쟁발 서방의 에너지 위기 여파로 숨통이 끊기기 직전이었던 원전 수십 기의 수명이 세계 곳곳에서 속속 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등이 현재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자금과 정치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벨기에는 2025년 중단 예정인 원전 2기의 가동을 2036년까지 연장하려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당초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아 가동 중인 원전 3기의 수명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 토론이 한창이다.

일부 독일 정치인들은 눈앞에 다가온 에너지난을 거론하며 이들 원전을 내년까지가 아닌 더 오랜 기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 전력의 약 8%를 생산하는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역시 가동 연장을 검토 중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4년 폐쇄가 예정된 이 원전을 최소 2029년까지 기간을 늘려 가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의 경우 2028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을 폐쇄할 예정이지만 현지 원전운영사인 EDF 에너지는 자사가 소유한 원자로의 가동 연한을 20년 늘릴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에 미온적이었던 일본 역시 현재 최장 60년인 원전의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원전의 신·증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원전 정책의 전환을 천명했다.

이처럼 수십년의 설계 수명이 거의 다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금세기 중반까지 온실가스 제로 달성을 추구하는 유엔 기후변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WSJ은 진단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각국과 일본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과된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축소하자 올 겨울 난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또 치솟은 가스가격에 각 가정의 에너지 청구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원전 반대 정서가 약해진 것도 서방의 원전 연장 흐름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가 자국에 있는 57기의 원전들을 원래 수명인 40년 후에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안전비용으로만 500억 유로를 책정하는 등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기존 원전을 계속 쓰는 것이 신규 원전 건설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도 각국이 원전 가동 연장에 나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WSJ은 짚었다.

아울러, 현재 프랑스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고, 영국과 체코, 폴란드 등도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전이 착공돼 소비자가 쓸 전력을 생산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에너지 위기 속에 원전 연장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측면도 있다.

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아 2050년까지 '넷 제로'(탄소순배출량 0)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전 수명을 늘리는 것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로 교체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밝혔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독립기념일 행사 리허설 말레이시아 구조대 생도들이 29일(현지시간) 수도 쿠알라룸푸르 독립광장에서 국기를 들고 제65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퍼레이드 리허설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57년 8월 3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미국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첫 비행

아폴로 17호 뒤 50여년만에 재개

심우주 탐사를 향한 인류의 꿈이 담긴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이 달을 다시 찾는 비행시점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9일 오전 8시 33분(한국시간 오후 9시 33분) 이 프로그램 1단계 계획의 핵심인 로켓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미국이 1972년 아폴로 17호 뒤 50여 년 만에 재개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첫 비행 미션이다.

사상 최강의 추력을 뽐내는 대형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에 실려 떠나는 유인 캡슐 '오리온'은 약 42일에 걸쳐 달 궤도에 다녀온다.

총 길이 98.1m로 32층 건물 높이인 SLS는 아폴로 우주선을 달로 보낸 새턴5(111m)보다 짧지

만 최대 추력이 400만kg 정도로 15% 더 강화됐다.

앞으로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핵심이 될 로켓과 유인캡슐의 데뷔 무대이자 첫 시험대다.

아폴로 시대의 기술력을 압도하는 대형로켓과 유인 우주선이 달을 오갈 수단으로 적절한지 집중 점검을 받을 계획이다.

오리온은 유인 캡슐이지만 실제 사람을 대신하는 우주복을 입은 마네킹 3개가 탑승할 예정이다.

우주 비행사가 달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주선과 장비가 제대로 제작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첫 비행 시험의 주목적이다.

마네킹은 실제 비행사를 모사해 뼈, 장기, 연조직 등 인체 조직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센서 5600개, 방사능 감지기 34개가 부착돼 비행사가 여행에서 받는 영향이 측정된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라퀼라 찾은 교황... 퇴임 수순 밟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도시 라퀼라를 방문하면서 조기 사임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라퀼라는 가톨릭교회 역사상 스스로 물러난 첫 번째 교황으로 기묘한 헬레스티노 5세(1215~1296) 전 교황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다. 2009년 30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 이후 지금까지 재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건강 악화로 생존 중 조기 사임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교황이 이곳에서 여러 차례 헬레스티노 5세를 칭송하는 발언을 하면서 조기 사임설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

헬레스티노 5세는 1294년 즉위 5개월 만에 사임해 '생존 중 퇴위'라는 첫 사례를 남겼다.

이날 교황은 라퀼라의 산타 마리아 디 콜레마조 성당에 있는 헬레스티노 5세 무덤 앞에서 기도한 뒤 "사람들의 눈에는 겸손한 자들이 약하고 패배자처럼 비치지만, 실제로는 오직 그들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의 뜻을 알기 위해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도 2013년 건강상 이유로 교황 직무를 내려놓은 바 있다. 베네딕토 16세 역시 사임 발표 4년 전인 2009년 라퀼라를 방문했다.

이 때문에 교황청이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라퀼라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때 사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원자력발전소 신·증설 반대

일본 국민의 10명 중 6명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검토 의사를 표명한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증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은 27~28일 18세 이상 유권자 998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원전 신·증설에 58%가 "반대"라고 답해 "찬성"(34%)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고 29일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24일 탈(脫)탄소 정책을 논의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형 핵신로(爐)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이 발언을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유지된 "원전 신·증설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전환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원전 신·증설이 검토되는 이유의 하나로 전력 부족 문제가 꼽힌다.

올해 6월 하순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 수급 증보가 처음 발령되는 등 일본 정부는 전력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도 일본 정부의 원전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3.7t 폭약에 32층 아파트 와르르 2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외곽 노아디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두 동이 폭파 해체공법으로 철거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철거를 위해 총 3.7t의 폭약이 사용됐으며 폭파 해체공법을 이용한 철거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 건물의 철거는 건설 과정에서 여러 건축 규정과 소방 안전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상무지구(상가매매)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감정가 (시세) 9억</p> <p>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p> <p>연수익 9천만</p> <p>매매 14억5천 (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p> <p>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p> <p>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p> <p>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p> <p>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p> <p>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p> <p>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p> <p>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p> <p>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p>
		<p>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p> <p>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p> <p>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p>
		<p>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p> <p>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p>

010-6670-9800 (062-382-5500)